국어 중주어에 관한 최소주의적 접근: 강도출론

임채경

(대구예술대학교)

Im, Chegyong. 2002. A Minimalist Approach to Korean Multiple Subjects: A Strong Derivationist's View.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0*(3), 57-76.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licensing of Korean multiple subjects in whole-part constructions, 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and 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s under the assumptions of the strong derivationist's view. Adopting Epstein and Seely(1999)'s assumption that LF and PF access each syntactic object at each point in a derivation, we propose that NP2 of multiple subjects pure-merges with the predicate, constituting a TP, T of which checks the Nominative Case of NP2. The syntactic object comprised of NP2 and the predicate, a compound predicate, participates in the syntactic operation with NP1, where the Nominative Case of NP1 is checked. We also cautiously propose that the Case marker "-ka/-i" is attached at Morphological Structure(Halle and Marantz 1993) because we assume that the honorification in Korean is not narrow-syntactic operation but pragmatic operation after Spell-Out.

주제어(key words): 중주어(multiple subjects), 최소주의(minimalist), 강도출론(strong derivation)

1. 서론

1.1. 목적과 선행연구

이 논문은 최근의 최소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최소주의의 여러 개념들을 이용한 국어의 중주어(혹은 중주격 논항) 설명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최소주의 이론(Chomsky 1993, 1995, 1998, 1999)이 제시된 이후 이를 국어의 중주어현상에 적용하려는 학자들의 시도를 시기에 따라 구분하면, Chomsky(1995)의 격점검이론의 틀안에서 중주어를 다중 자질점검(multiple feature checking)과 지연성의 원리(procrastinate)로 설명하려 한 Yang(1996, 1999, 2000), Kim(1998) 및 이를 비판한 Yoon

(1998), Im(2000) 등의 그룹과, Chomsky(1998, 1999)에서 일치(Agree) 및 탐침(Probe)과 목표(Goal) 등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이를 활용한 Moon (2000), Jung(2001) 등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그룹도 여전히 spell-out 이전이든, PF 단계에서든 확대투사원리(EPP)를 인정하거나 화용적 자질인 초점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Chomsky(1999)에 제안된 국면별 도출(derivation by phase)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도출의 최소범위를 엄밀화하는 강도출론자(strong derivationists)의 입장을 취하여 국어 중주어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려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국어의 중주어를 정의하는 문제는 국어의 주어를 정의하는 문제 못지 않게 어렵다. 우선 주어와 주격논항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주격조사를 "-가/-이"로 한정할 것인가, 국어의 주격부여자 내지 자질점검자를 T 혹은 INFL로 할 것인가, 아니면 AGR로 할 것인가, AGR를 설정한다면 국어의 AGR는 존칭보조어간 "-시"와 복수어미 "-들"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고, 나아가 구조격, 내재격 둘 다 인정할지 혹은 구조격만 인정할지, 아예 격을 인정하지 않고 PF상의 확대투사원리(이하 EPP)현상으로 주어를 설명할 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견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주어test"에 사용되는 "-시"와 "-들"의 화용적 기능을 주장하여 화용격을 제안한 연구에서부터 역시 "주어test"에 사용되는 대용어의 역할과 해석이 영어와 다른 점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하물며 중주어에 대한 논의는 그야말로 백화제방이어서 최소주의 이전의 연구는 논외로 한다하더라도 주어의 정의에 따른 이견과, 구조와 기능범주의 설정에 따른 이견, 또 연구의 틀(framework)의 차이에 따른 이견 등이 많으나 이를 모두 살펴 볼 수는 없고 최소주의 이후에 제안된 대표적인 연구만 요약,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가/-이"를 주격조사로 인정하고 중주어도 발화시의 순서, NP1, NP2 둘 다 주격조사 "-가/-이"를 가질 때 이를 중주어로 인정한다. 단 연구의 범위를 소위 전체-부분구문(whole-part constructions)과 비분리소유구문(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그리고 장소격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s)으로 제한하고 주격목적어구문(nominative object constructions)은 4장에서 잠시 언급하겠다. 이어 2장에서는 다중 자질점검을 이용한 중주어설명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3장에서는 확대투사원리를 인정하지 않는 Epstein & Seely(2001) 등의 강도출론자의 가설을 소개하고 이를 중주어분석에 적용해 본다. 4장에서는 이 대안이 설명력을 얻기위해 몇 가지 해결되어야하는 이론적, 경험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결론을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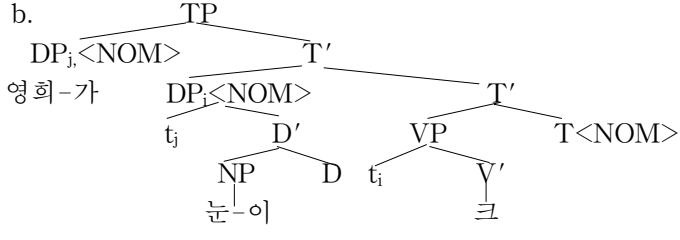
2. EPP와 중주어

2.1. 자질점검과 다중지정어

격점검 이론을 국어의 중주격 구문에 적용한 연구는 Yang(1996)이 있는데 이 연구는 Ura(1996)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주격구조를 소유명사구 상승(Possessor Raising)으로 보고 소유명사구를 Infl(Agr)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시켜 격점검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a. 영희가 눈이 크다.

b.



(1b)에서 전체 주어명사구[영희가 눈이]가 T의 Spec위치로 이동하여 T에 의해 격점검을 받은 후 주격을 가진 소유명사구 [영희]가 상위의 [Spec, TP]로 이동하여 T에 의해 격점검을 받는다. 이렇게 다중 지정어를 설정하면 국어의 중주격구조가 설명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설명에는 임(200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론 내적 문제점으로, 어떻게 다중 지정어가 허가되는가 하는 점이다. Chomsky에 의하면 다중 지정어는 핵의 강자질이 삭제(deletion)되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다중 지정어는 지연성의 원리(Procrastinate)위배로 설명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떤 자질이 강하여 지연성의 원리를 위배하고도 살아남는다면 한번 이상의 외현이동(overt movement)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국어의 주격자질이 강하여 T에 의해

한번 자질을 점검받은 후에 그 자질이 약해졌지만 다시 한번 이동을 했으므로 이런 경우는 지연성의 원리를 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자질만이 자질점검 후 지연성의 원리를 위배해가면서 까지 다중 지정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은 국어에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선 국어에서는 EPP가 강자질이 아니다.

(2) a. It seems to be raining.
b. 비가 오는 것 같다.

(3) a. It looks like she is a beauty.
b. 그녀가 미인인 것처럼 보인다.

(2), (3) 둘 다 영어와 같은 의미의 국어를 대조해 보았는데 영어는 EPP자질을 점검하기 위해 허사 "it"이 필요하나 국어는 (2b)에서는 "비가 오는 것"이 "같다"라는 술어의 주어위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3b)에서는 "보인다"의 주어를 찾기가 힘든다[1].

다음은 경험적 문제로 국어의 중주격구문을 소유명사구 상승으로 분석하는 Yang(1996)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예를 확대하면 문제가 생긴다[2].

---

1)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2b)와 (3b)의 구조를 다음과 같은 인상구조로 볼 수 있다.

(2b)′ [비가 [t 오는 것] 같다]
(3b)′ [그녀가 [t 미인인 것처럼] 보인다]

(2b)′, (3b)′은 주어가 내포문의 술어와 먼저 병합된 후 주절의 주어위치로 인상된 구조로서 영어와는 달리 국어에는 주절의 주어위치를 차지하는 허사가 없다고 본다면 이 분석이 옳다. 그러나 허사가 나타나는 복문과 인상에 의한 단문은 엄밀히 따져보면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그 명제성이 다르다. (두 예문을 각 각 부정문으로 만들면 그 명제의 의미차가 더 뚜렷하다.)

i) It seems that John is honest.
ii) John seems to be honest.

뿐만 아니라 영어와는 달리 (2b), (3b)에서 인상된 주어가 각 각 "...같다", "...보인다"와 어떤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 힘들다. 오히려 "비가 오는 것", "그녀가 미인인 것처럼" 전체가 각 각 술어와 의미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 (2b), (3b)의 구조는 영허사구문(null expletive constructions)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같다.

2) 유(1999)에는 서술어가 가지는 논항의 수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 Moon(2000)에는 "비분리소유구문(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분리소유구문(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주격목적어구문(nominative object constructions)"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4) 전체-부분 구문
담배가 청자가 독하다.
(5) 주격목적어구문[3)]
a. 철수가 사랑이 필요하다.
b.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
c. 내가 철수가 밉다.
(6) 장소격도치구문
a. 이 공장이 불이 났다.
b. 유독 이 지역이 지진이 심하게 발생하였다[4)].

(4), (5)의 예문에서뿐만 아니라 Youn(1990)에서 제시된 (6a)와 김(2000)에서 제시된 (6b)의 NP1과 NP2 사이에 소유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또 소유관계(형태적으로)가 성립하는 Gerdts(1987), Choi(1988) 등에서 제시된 양화사 부동(quantifier floating)의 다음 (7)의 예에서는 NP1과 NP2 사이의 소유관계가 (1)과는 역으로 나타난다.

(7) 학생이 세 명이 왔다. ("세 명의 학생이 왔다"에서 도출된 구조로 봄.)

결국 (4)-(7)의 예들은 (1b)의 구조와 격점검 이론으로는 중주어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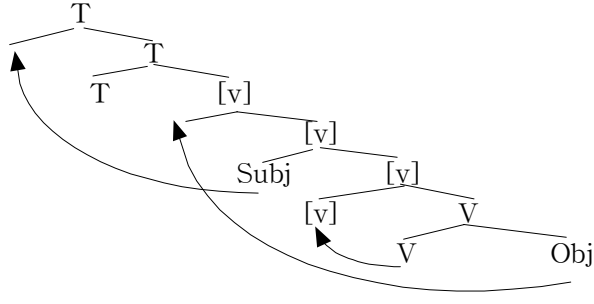
또 Chomsky(1995)이후로는 AGR없는 통사구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자질점검이 T와 동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국어의 주어와 목적어를 점검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

3) 이 두 문장을 흔히 주격목적어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볼 때 (5a)의 "필요하다"가 영어의 "I need love."에서의 "need"처럼 행위역과 피영향역을 부여하는 대격동사인지 의심스럽다. 또 (5b)의 "무섭다"는 심리술어로서 대격동사가 아니므로 "호랑이"는 구조적 위치가 대격동사의 목적어 위치와 다르다.

4) 김광섭은 이 문장이 "지진이 유독 이지역에서 심하게 발생했다."에서 처소격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그는 "논항은 품사에 관계없이 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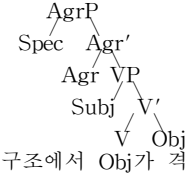
위의 구조에서 보듯이 국어에서는 목적어가 동사에 선행하기 위해서는 동사에 의해 형식자질을 점검받을 수 있는 [v]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또 주어도 목적어에 선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의 격자질을 점검하는 T의 외곽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구조를 가지고 국어의 중주격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우선 Chomsky는 경동사구 [v](혹은 vP)의 지정어위치에 행위역(agent)을 가진 명사구가 나타나야한다고 보는데 (5b)와 같은 예의 NP1은 행위역이라기 보다는 경험역(experiencer)의 의미역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5b)의 NP1과 NP2 둘 다 VP(혹은 AP) 속에 있어야 한다. 둘째, 강(1999)의 지적대로 (5c)의 '내가 철수가 밉다'는 LF의 해석에서 '철수가 내가 밉다'로도 해석된다. 왜냐하면 이동의 목표인 TP의 지정어 위치에 대해 VP(혹은 AP) 속의 두 명사구 '내', '철수'는 등거리(equi-distance)[5]관계에 있기 때문

5) 등거리(equi-distance)는 Chomsky(1995)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i) 만약 α, β가 같은 최소영역(minimal domain)안에 있다면 그들은 γ로부터 등거리에 있다. 다음 구조를 보자.

(ii)



(ii)의 구조에서 Obj가 격을 점검받기 위해 Spec위치로 이동할 때 Subj(혹은 그 흔적)을 넘어야 하는데 이는 상대적최소성을 위배한 것이고 최소이동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그러나 등거리원칙에 의하면 AgrP의 Spec위치나 VP의 Spec위치는 Agr로부터 등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다. 다시 말해 NP1과 NP2 둘 다 주격조사 "-가/-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주어와 목적어의 해석에 혼란이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Agr를 설정하지 않고 국어의 격점검을 시도하더라도 역시 중주격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2.2. 순환 술어화 (cyclic predication) 분석

Moon(2000)의 연구에서는 "honestly", "fortunately" 등의 부사와 상호대용어의 분포를 이용하여 다중지정어(multiple spec)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탐침 T와, [spec, vP]위치에 병합된 NP1 사이에 일치(Agree)가 일어나 T의 비해석성 ϕ-자질과 NP1의 구조격 자질이 삭제되면서 NP1의 주격이 부여된다고 본다. 이어 NP1은 T의 EPP자질 때문에 [spec, T]로 상승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일치는 국어의 경어법(honorification)으로 나타나는데 Moon(1989)의 주장에 따르면 NP1이 화자보다 연장자일 때(아마 *"사회적 위계가 높을 때"*를 의미하는 듯) 술어에 경어표지(honorific marker)가 실현된다고 한다.

(9) a. 임금님이 용안이 수려하시다.
b. 아버님이 형제분이 많으시다.
c. 선생님이 발이 넓으시다.

경어표지 "-시"가 형용술어에 덧붙어 NP1과 일치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NP2는 내재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 NP2와 술어가 병합되어 복합술어(compound predicate)을 형성하여 다시 한번 술어화를 이루고 이 긴 술어가 NP1에 의미역을 부여한다고 본다. 이를 순환적 술어화라고 부른다.

이 분석의 장점은 술어화를 도출단계로 설명함으로써 최소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최소의 통사체를 최소한의 통사적 작용(병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의 문제점은 NP1에 주격을 부여하기 위한 일치자질 "경어법"의 설정이다. 과거 강(1992), 고(1992), 유(1995) 등에서는 Pollock(1989) 등을 따라 INFL을 Tense와 AGR로 나누고 국어의 "-시-"를 일치소(AGR)로 보았다. 이들은 "-시"의 출현이 수의적이고 화용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어와 어느 정도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통사적인 AGR요소라고 보는 것이다[6].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대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0) a.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b. *아버지께서 책을 읽는다.
(11) a. 아버지께서 돈이 많으시다.
b. *아버지께서 돈이 많다.

(10a)에서는 주격논항 “아버지”와 동사구가 경어법에 있어서 일치하므로 정문이고 (10b)는 동사구에 일치소 “-시”가 없어 지정어-핵일치(Spec-head agreement)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중 주격구문인 (11a)에서 지정어-핵일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돈”이 아니라)가 문의 주어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주어높임(subject honorification)은 통사적이 아니라 화용적이다. (11a)에서 “많다”라는 술어가 주는 의미역은 분명히 “돈”이 가지지만 “아버지”의 사회적 위계 때문에 술어에 “-시”가 나타난 것이다. 또 다음 예를 보자.

(12) 철수가 아버지가 부자이시다.

(12)에서는 (11a)와 대조적으로 술어가 첫 번째 명사구인 “철수”와 일치를 이루지 않고 두 번째 명사구인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일치란 것이 문 내의 논항(명사구)의 통사적 자질 즉 성, 수 인칭과는 아무 상관없이 발화자와 문 내 명사구(사람)와의 사회적 위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여기에 발화자와 청자와의 사회적 위계관계까지 반영된다면 이를 도저히 통사적 요소로 볼 수 없다[7]. 그러므로 분리굴절소 가설에 의해 “-시”를

6) 국어의 존칭일치(honorific agreement)요소 “-시”를 주격부여의 판정요소로 보는 견해는 Pollock과 Chomsky의 분리굴절소 가설(Split Infl Hypothesis)이 제안되기 전에도 Kang(1986), Han(1987), Choe(1988), Yoon(1990) 등 GB이론 내에서 국어의 구조를 밝히려는 많은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7) 예를 들어 과장이 사장에게 “김부장님 출장가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만약 “김부장님 출장갔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문법적으로 틀린 문인지, 아니면 사장이 이 과장을 단순히 건방진 사람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판정하기가 어렵다. 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남편의 출장을 알릴 때 “애비 출장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경어법이라면 “그 사람 출장가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그 말을 들은 시부모가 다만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언어외적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어에 나타나는 이러한 소위 객체존대나 청

국어의 일치소(AGR)로 보고 주격을 부여하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3. 강도출론

Epstein & Seely(1999)는 Nunes(1999)의 견해를 받아들여 병합과 이동의 기본적인 통사작용만으로 도출을 설명하면서 A-연쇄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은 Martin(1999)의 가정을 받아들여 EPP의 잉여성을 주장하면서 격이론만으로 T 혹은 I의 지정어위치에 오는 통사체의 허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8]. 나아가 그들은 아래 (13)과 같은 반복 Y-모델(iterative Y-model)을 제안하면서 모든 통사체는 통사작용(병합과 이동)이 작용하여 도출될 때마다 LF와 PF로 입력(feed)된다고 주장한다 (Epstein & Seely 1999). 이를 강도출론이라 한다[9].

(13) T#1 yields R#1 (PF, LF) --> T#2 yields R#2 (PF, LF) --> T#3 yields R#3 (PF, LF) --->

(T=transformational operation, R=representation)

이제 이 가설을 국어중주어에 적용해보자. 편의상 앞에서 제시되었던 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14) = (1) 영희가 눈이 크다.
(15) = (4) 담배가 청자가 독하다.
(16) = (6) 이 공장이 불이 났다.

자존대 등의 복잡한 경어법이 spell-out이전의 도출과정에서 작용하는지 의심스러우며 양(1997, 1999) 등에서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고 Moon(2000)에서 주장하듯이 국어의 어휘부에 형태적으로 경어법이 존재한다면 국어의 모든 명사(구)가 그에 대응하는 존대어를 가진다는 부담스러운 가정을 내세워야 한다. (9c)의 “발”에 대한 Moon의 주장을 참고.

8) 이러한 주장은 계속해서 Grohmann, Drury, and Castillo(2000), Boskovic(2001)에서도 나타난다.

9) 이러한 생각은 Uriagereka(1999)의 다중 문자화(multiple spell-out)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Kayne(1994)의 LCA를 비판하면서 PF해석을 도출의 끝까지 끌고 가는 필요성을 없애고 단계별(step by step)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14)-(16)에서 NP2와 술어가 병합한다[10]. 이때 술어는 NP2에 의미역을 부여한다. 다음 (17)-(19)의 예와 위의 예들을 비교해 보면 이들 술어가 일차적으로 NP2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NP1에 부여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11].

(17) 영희가 크다.
(18) 담배가 독하다.
(19) !이 공장이 났다.

이제 (14)에서 {눈} 과 {크다} 이 병합하여 {α, {눈, 크다} } 의 통사체를 이룬다. 이를 편의상 1차 술어화(first predication)이라 하자. 그리고 이 통사체는 일종의 복합술어(compound predicate)가 되어 NP1에 의미역을 부여한다 (2차 술어화). NP2가 술어와 병합하여 복합술어가 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NP2와 술어가 이루는 관용적 표현에서 그 당위성을 높힐 수 있다[12].

---

10) 배번집합에서 {NP1}, {NP2}, {술어} 모두 통사체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NP1} 과 {NP2} 의 병합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으나 단계별 도출에서는 bottom-up 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NP2} 와 {술어} 의 병합이 우선된다. {NP1} 과 {NP2} 의 병합이 이루어진 통사체의 도출이 즉시 LF와 PF상에서 해독불가(illegibility)이기 때문에 전체문장이 비문법적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이러한 배번집합의 순서와 모순에 관한 문제를 “Gutmann′s problem” 이라 부른다. 더 자세한 논의는 Epstein & Seely(1999) 참고.

11) 초기 최소주의에서는 이를 상대적 최소성(Relativized Minimality)의 정신과 같은 최소고리조건(MLC) 등으로 설명했으나 연쇄와 X′규약 등의 구조적 형상을 가정하지 않는 도출론에서는 “거리”, “선행” 등의 개념이 없으므로 위의 조건이나 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

12) 김용하(p.c.)의 지적대로 이런 분석은 이미 최현배 선생의 우리말본에서부터 제안된 것이고 Han(1987)외 많은 연구에서도 Rothstein(1983)의 서술화 이론을 받아들여 같은 주장을 했다. 김용하(p.c.)는 이러한 분석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서술화 분석은 일차 술어화(first predication)에 의해 주술 관계가 맺어진 구성체가 여전히 열린 술어로(open predicate) 분석이 되어야 성립이 된다.

(i) ㄱ. 손이 크다. (1차 술어화)
ㄴ. 순희가 [손이 크다] (2차 술어화)

즉, (1ㄱ)이 여전히 열린 술어로서 논항을 요구하는 술어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1ㄴ)의 ‘순희가’가 2차적으로 다시 주어로 나타나는 것은 (1ㄱ)의 1차 술어가 열린 술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직관적으로 (1ㄴ)의 ‘순희가’

(20) a. 영희가 손이 크다. (손크다=잘 베푼다)
b. 철수가 발이 넓다. (발넓다=아는 사람이 많다)

만약 1차 술어화에서 발화가 되면 (즉 spell-out이 일어나면) (13)의 모델에서 보듯이 이 통사체 {α, {눈, 크다} } 가 LF와 PF로 입력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α, {눈, 크다} } 의 통사체가 복합술어(compound predicate)가 되어 NP1에 의미역을 부여한다면 이때 부여하는 의미역은 무엇인가? 둘째, NP1과 NP2가 공히 주격을 부여받는다면 격은 언제 어떻게 부여되는가? 또 조사 "-가/-이"는 어휘부에서 NP1, NP2에 붙어서 배번집합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시점에서 선택(Select)되어 NP1, NP2와 첨가(attach)되는지 (후어휘삽입 (late lexical insertion))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첫번째 의문에 대한 답은 Moon(2000)과 김(2000)에 일부 제시되어 있다. Moon은 Yoon(1987, 1990)의 제안을 차용하여[13] NP2와 술어가 이루는 술

는 '손이'의 지시를 명확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 관계는 곧 '손이 크다' 전체가 열린 술어라기보다 '손이'가 일종의 열린 술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설명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여러 번의 순환적 술어화로 설명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ii) 철수가 동생이 가슴이 왼쪽이 크다.

그의 지적대로 (2)의 예에서 "크다"가 "왼쪽"에 의미역을 부여하면서 술어화를 이룬다고 보기는 힘들고 "학생이 세명이 왔다"와 같이 NP2가 수량사인 경우에도 NP2가 술어와 먼저 병합하여 온전한 술어화를 이룬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강도출론에서는 통사체의 병합에 제약이 없고 통사체의 집합에도 (2)의 경우 5!의 개수만큼 집합이 있을 수 있다. 어휘부에 있는 모든 통사체가 집합에 참가했을 때 최종 도출이 LF와 PF에서 해석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60개의 배열 중 (2)의 도출이 개념-의도체계(conceptual-intentional system)과 조음-청취체계(articulatory-perceptual system)에서 가장 최적(optimal)의 구조인 것이다. 비록 " { α { {왼쪽} {크다} } } "의 통사체가 병합후 즉시 LF와 PF로 들어가 합치되지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 (9) 참고.

13) Yoon(1990)은 국어의 이중목적어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안하였다.

John 이 Mary를 손을 때렸다.
NP1 NP2

동사 "때렸다"가 NP2에 의미역확인(theta-identification)을 하고 복합술어 [v′ [[NP2] [V]]]가 NP1에 의미표시(theta-marking)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의미역확인은 논항의 의미가(valency)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복합술어는 포화되지않은(unsaturated) 의미역을 그대로 방출(discharge)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의미역표시는 논항의 의미가를 줄인다.

어화는 복합술어가 되어 핵술어(head predicate)의 의미가와 같은 의미역을 NP1에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의미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김(2000)에서 답을 찾아보자. 그는 “술어가 함의하는 의미”가 의미역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장소역 전치사구 등의 비한정사구(non-DP)가 의미역을 부여받으면서 주어가 된다고 본다.

(21) John is sick. (김 (50c))

그의 주장대로 “일반적으로 ‘s가 상태이면, s는 X의 상태이다.... 만약 s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가 s는 X의 상태라는 함의를 한다면, 상태자역(statee)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진다.”면 (21)의 John은 상태자역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김(2000)의 의미역과 Moon(2000)의 복합술어화를 (14)에 적용하면 (14)에서 “눈”은 “크다”에 의해 상태자역이 부여될 것이고 {눈} 과 {크다} 가 병합되어 복합술어가 형성되면 이 술어는 앞에서 밝힌 절차를 통해 NP1인 “영희”에 역시 상태자역을 부여한다고 본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Moon(2000)에서는 Lasnik(1992, 1995), Belletti(1988)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NP1에 구조격을 NP2에 내재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X′형상구조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격, 내재격의 구분이 없으며 NP1과 NP2 공히 주격을 부여받는다고 본다. (14)의 예에서 {눈} 과 {크다} 가 병합되어 { α, {눈, 크다} } 의 통사체를 이루며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제안한다(편의상 X′구조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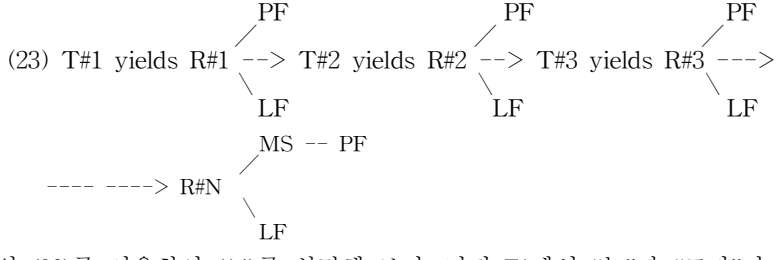
(22) [$_{TP}$ T [$_{SC}$ [눈] [크]]]

“눈 크다”에는 이미 시제(현재시제)가 발현되어 있으므로 이 통사체는 시제절(TP)이고 여기서 “눈”이 T의 격자질을 점검받아 T의 지정어위치로 이동한다. 이어서 “눈 크다”의 통사체가 “영희”와 병합되는데 이때 앞에서 밝혔듯이 “눈 크다”의 TP가 하나의 술어가 되어 “영희”에 다시 주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

14) Epstein & Seely(1999: 13-15)는 “Mary was arrested.”의 도출을 설명하면서 “Mary”가 {was {was {arrested {arrested {arrested Mary}}}}와 병합하기 직전 “was arrested Mary”가 최대투사에서 single-bar투사로 상태가 바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X-bar구조를 설정하지 않고 이를 해결한다. 주격부여의 문제도 본고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나 일단 (21)의 [$_{TP}$ T [$_{SC}$ [눈] [크]]]에서 T가 “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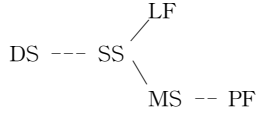
이제 주격조사 "-가/-이"가 각 명사에 언제 첨가(attach)되는지 살펴보자. 앞에서 제안된 과정을 거쳐 "눈"과 "영희"가 주격의 자질을 가지나 주격조사가 형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주격조사의 형태적 실현은 격이 부여된 논항들의 최종 도출 이후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Halle & Marantz(1993)의 Distributed Morphology를 차용한 것으로 (14)의 주격조사 "-가/-이"가 도출의 끝에서 최종 PF와 LF로 넘어가기 직전 후어휘삽입(late lexical insertion)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Im(2000)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주격조사의 경어법은 최종발화 직전 화용적인 요인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므로 Halle & Marantz(1993)에서 제시된 형태구조[15] (Morphological Structure: MS)에서 "-께서"와 "-가/-이"가 선택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3)의 도출과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위의 (23)를 이용하여 (14)를 설명해 보자. 먼저 T1에서 "눈"과 "크다"가 병합되어 R1이 되고 T2에서 "영희"와 R1이 병합되어 R2가 된다. 이 구조가

주격을 부여한다면 다시 병합되는 "영희"의 주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영희"가 배번집합에 들어오는 요인은 Rizzi(1997)의 주장대로 화제와 초점의 Force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어의 경우는 이 ForceP에 "-가/-이"가 첨가되어 주격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목적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중목적어의 NP1이나 NP2 둘 중 하나 이상은 화제나 초점의 Force에 의해 배번집합에 들어오며 이 ForceP에는 "-을/-를"이 첨가되어 목적격이 두 번 부여된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으나 일단 "T의 영역안에 들어 올 수 있는 논항은 주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V(혹은 v)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논항은 대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고 잠정적으로 제안한다. 즉 논항이 가지고 있는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격자질이 논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15) Halle & Marantz(1993, 114)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의 표시층이 제시되어 있다.



최종도출이 되고 MS에서 격조사가 첨가되어 “영희가 눈이 크다”라는 통사체가 PF와 LF로 들어간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도출론에서는 형상적구조를 상정하지 않고 구가 병합될 때마다 도출된 표시(representation)가 LF와 PF로 입력된다고 보므로 국어중주어구문의 경우 먼저 NP2와 술어가 의미역기준에 의하여 병합하여 소절과 같은 1차술어화가 이루어지고 이 소절의 성격이 TP이므로 NP2가 T의 격자질에 점검받아 주격을 받는다. 다시 이 병합된 통사체가 NP1과 병합하여 2차 술어화가 이루어지고 NP1도 2차 술어 T의 격자질에 의해 주격을 부여받는다. 이후 격조사의 선택은 국어의 화용적 성격 때문에 형태구조(MS)에서 후어휘삽입되어 명사구에 첨가된다.

4. 결론과 남은 문제

국어중주어를 최소주의의 틀안에서 분석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Chomsky(1993, 1995)에서 제시된 자질점검이론과 Ura(1996)의 다중자질점검을 적용한 분석이고 두 번째는 Chomsky(1998, 1999)이후의 일치(Agree)개념을 이용한 분석이다. 두 번째의 분석 중 vP와 CP를 국면(phase)으로 인정하고 T의 D자질을 격자질점검자로 보는 입장을 약도출론으로, 구(phrase)가 병합될 때마다 도출을 인정하고 격이론을 독립된 모듈(module)로 보면서 EPP를 흡수하는 입장을 강도출론으로 구분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강도출론을 따라 국어중주어에서 NP2와 술어가 우선 병합하여 복합술어를 이루고 이 복합술어가 NP1과 다시 병합한다고 주장한다. 이 병합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의미역이고 전체-부분구문(whole-part constructions)과 비분리소유구문(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그리고 장소격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s)은 모두 1차 술어화와 2차 술어화에서 상태역(statee)의 의미역을 부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구조격과 내재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병합된 NP2와 술어가 TP성격을 지닌 일종의 소절을 이루며 NP2에 주격을 부여하고 2차 술어화에서 NP1에 주격이 부여된다고 본다. 덧붙여 격조사 “-가/-이”는 국어의 강한 화용적 측면 때문에 최종도출이 PF로 입력되기 전 형태구조에서 명사구에 첨가된다고 본다.

이제 지금까지의 주장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우선 EPP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의 보완책을 살펴보자. Martin(1999), Epstein &

Seely(1999) 등은 EPP가 T의 D자질이라는 Chomsky(1995)의 제안을 반박하고 있다. 우선 비해석성 자질은 LF에서 합치 (converge)하기 위해 점검을 통해 삭제되어야 하는데 D자질은 명사를 포함한 한정사구 (determiner phrase)의 고유자질이기 때문에 범주자질이고 모든 범주자질은 해석가능한 자질이다[16]. 그리고 어떤 범주가 D자질을 가지고있으면 그 자질이 투사된 범주는 DP 혹은 DP의 성격을 띤 범주가 되어야하는데 TP나 IP는 (시제 등의 자질을 포함한) 동사자질의 투사이므로 이 또한 무리한 주장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D자질이 애초부터 T나 I에 포함되어 어휘부에 있는지 아니면 도출과정에서 병합되는지도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Martin, Epstein & Seely 등은 시제절과 통제부정사구에서의 영격 (null Case)점검의 EPP가 격이론과 자질일치로 흡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7]. 이렇게 EPP를 설정하지 않는 주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존재허사구문이다.

(23) There is a man outside.

최소주의를 이론의 틀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a man”이 LF에서 비현시적(covert)이동을 하여 T로부터 격을 받고 허사 “there”은 (PF에서) EPP를 충족한다고 본다. 그러나 Epstein & Seely(1999)는 Groat(1995)의 제안대로 T이 격자질이 “there”(순수 격점검자)에 의해 점검되고 “a man”의 격은 Belletti(1998)의 제안을 따라 “be”에 의해 내재격인 부분격(partitive Case)이 점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구조격과 내재격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a man”과 “outside”가 병합하면 의미역기준은 충족한다. 이 통사체는 일종의 소절(small clause)을 이루고 “ a man”은 NP이므로 격을 가진다(격의 명칭은 무엇이든 관계가 없다). 다시 “is”가 병합되고[18] 도출된 통사체는 “there”과 병합한다. 이때 “a man”이 T의 지정어위치로 먼저 이동하지 않는 것은 MOM(Merge over Move)으로 설명

16) “... among the Interpretable features are categorial features.” (Chomsky 1995, 277).

17) 예외적격표시구문과 인상술어 (raising predicate)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더 자세한 것은 Epstein & Seely(1999) 참고.

18) “be”동사 중 “is”가 선택된 것은 이미 도출된 통사체에서 격을 가진 명사(“a man”)와 일치(Agree)를 위해서이다.

할 수 있다. 이것이 강도출론의 장점으로 가능한한 이동을 없애고 엄밀한 병합의 순환으로 통사체의 도출과정을 설명하며, 이동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Last Resort)으로 미룸으로서 최소주의의 정신과 국부적 경제성(local economy)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한 분석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이제까지 다루지 않은 국어의 소위 주격목적어구문(NOC)이다. 2장에서 제시되었던 예를 다시 보자.

(24) a. 철수가 사랑이 필요하다.
b. 내가 호랑이가 무섭다.
c. 내가 철수가 밉다.

(주2)에서 위 세 문장이 영어의 대격동사구문에 대응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중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지만 영어적 해석으로 NP2를 목적어라고 명명해보자. 각 문장에서 NP1과 술어(동사)가 먼저 병합하느냐 NP2와 술어(동사)가 먼저 병합하느냐는 앞에서 언급한 Gutmann's problem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가지 경우, 병합결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24)의 술어들은 각각 경동사 "하"가 있는 "필요로 하다", "무서워하다", "미워하다"와는 의미역가가 다르다. 경동사 "하"가 포함된 동사가 2항동사라는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로 (음운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의 논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과연 (24)의 술어들이 2항술어만으로 쓰이는가?

(25) a.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사랑이 필요해.
b. 호랑이가 무섭긴 무섭구나.
c. 철수는 너무나 미운 존재야.

(25)의 예들에 경험역 논항 "--에게"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총칭적(generic)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19]? 만약 이들 술어들이 1항술어로도

19)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24), (25)의 술어들은 Belletti & Rizzi(1988) 등의 (1)에서 제시된 영어의 심리술어구조를 차용하여 종래의 많은 논문에서 다음 (2)와 같이 Pro_{arb}를 주어로 가지는 이항동사로 다루고 있다.

(1) [vp frightens me the tiger]
(2) [Pro_{arb} 호랑이가 무섭다]

그러나 만약 "호랑이는 무섭다"라는 구문의 구조가 "호랑이는 사납다"의 구조와

사용된다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24)의 주격목적어구문은 앞에서 제시한 순환적 술어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윤. (1999). 격배당의 문제. 한국어학회(편). *국어의 격과 조사* (pp. 677-715). 월인.

김광섭. (2000). 비한정사구 (non-DP) 주어에 관한 연구, *생성문법연구, 10*, 37-69.

유형선. (1999). 이중주격구문의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회(편). *국어의 격과 조사* (pp. 717-731), 월인.

임채경. (2000). 격이론의 보편성과 국어 중주어구조. *언어과학연구, 17*, 79-98.

Belletti, A. (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 19*, 1-34.

Belletti, A. & Rizzi, L (1988). Psych-verbs and theta theory. *NLLT, 6*, 291-352.

Boskovic, Z. (2001). A-movement and the EPP.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onnecticut.

Choe, H-S. (1995). Focus and tpic movement in Korean and licensing. In K. E. Kiss (Ed.), *Discourse configurational languages* (pp. 269-334), Oxford U. Press.

Choi, Y-S. (1988). *A study of ascension constructions in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Hawaii.

Chomsky, N. (1982).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OPL 15.*

Chomsky, N. (1999). Derivation by phase. *MITOPL 18.*

같다면, 다시 말해 "무섭다"가 심리술어가 아닌 일반적인 형용술어로도 사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위의 논리전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4b)를 예를 들어 심리술어 "무섭다"의 VP 내부에 있던 영향역 논항 "호랑이"가 T의 지정어위치로 상승한 후 이 R1이 T2에서 경험역 논항 "나"와 병합된다고 봐야하는데 영향역을 가진 논항이 VP밖으로 상승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으며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Collins, C. (1997). *Local economy*. MIT Press.

Epstein, S. D, & Seely, T. D. (1999). SPEC-ifying the GF "subject"; Eliminating A-chains and the EPP within a derivational model. Unpublished Manuscript.

Freeze, R. (1992). Existentials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 553-595.

George, L., & Kornfilt. (1981). Fit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In F. Heny (Ed.), *Binding and filtering* (pp. 105-127). Cambridge: MIT Press.

Gerdts, D. (1987). Surface case vs. grammatical relations in Korean: The evidence from quantifier floating. *Studies in Language*, *11*(1), 181-197.

Groat, E. (1995). English expletives: A minimalist approach. *LI, 26*, 354-365.

Groat, E. (1999). Raising the case of expletives. In S. D. Epstein &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pp. 27-43), Cambridge, Mass: MIT Press.

Grohmann, K., Drury J. & Castillo, J. C. (2000). No more EPP. *The Proceedings of West Coast Conferences on Formal Linguistics*, *19*, 153-166. Somerville, Mass.: Cascadilla Press.

Halle, M. & Marantz, A. (1993). Distributed morphology and the pieces of inflection. In Hale & Keyser (Eds.), *View form building 20*, (pp. 111-176). MIT Press.

Han, H-S. (1991). The Case of Korean adjectives and passive verb.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1), 219-249.

Im, C-G. (2000). Licensing of "-ka/-i" at morphophonemic Level. *Studies in Modern Grammar*, *20*, 47-70.

Jung, Y-J. (2001). Multiple case marking and its PF interpretatio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6*(2), 239-268.

Kang, Y-S. (1986). *Korean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

Kang, M-Y. (1996). A Minimalist approach to double nominative constructions. *Korean Linguistics*, *4*, 117-139.

Kayne, R. (1994). *The Antisymmetry of syntax.* MIT Press.

Kim, Y-H. (1998). Does merge always defeat move? Paper presented in the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 Seoul.

Kim, Y-J. (1990).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emantic levels of represen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Kim, S-W. (2001). A Study on the EPP in the minimalist program: the EPP as a PF Requirement. *Studies in Modern Grammar*, *24*, 47-66.

Lasnik, H. (1992). Case and expletives: Notes toward a parametric account. *LI*, *23*, 381-405.

Lasnik, H.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 *26*, 615-633.

Lasnik, H. (2000). A Note on the EPP. Unpublished manuscript. UConn, Storrs.

Martin, R. (1999). Case,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minimalism. In S. D. Epstein &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pp. 1-25). Cambridge, Mass: MIT Press.

Moon, G-S. (1989). *The Syntax of null argum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 of Texas at Austin.

Moon, G-S. (2000). The Predication operation and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Focusing on 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0*, 239-263.

Nunes, J. (1998a). Bare X-bar theory and structures formed by movement. *LI*, *29*, 160-167.

Nunes, J. (1998b). On the distinction between deletion and erasu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

Platzack, C. (2000). Multiple interfaces. Unpublished manuscript. Lund University.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In L. Haegeman, (Ed.), *Elements of grammar: Handbook in generative syntax* (pp. 281-337). Reidel Publishing Co.

Rothstein, S. (1983).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Schütze, C. (1996). Korean case stacking isn't: Unifying noncase uses of case particles. *NELS*, *26*, 351-365

Ura, H. (1996). *Multiple feature-checking: A theory of grammatical function spli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Yang, D-W. (1996). The Korean case structure in the minimalist

program.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1*(1), 139-190.
Yang, D-W. (1997). Multiple identical case constructions and focus interpretation. *Proceedings of SICOL-97.* Linguistic Society of Korea.
Yang, D-W. (1999). The Theory of agree and the Korean case system. Paper presented in the Korean Generative Grammar Circle, Seoul.
Yang, D-W. (2000). Quirky case and the maximization principle. Unpublished manuscript.
Yoon, J-M. (1998). A Critical survey of GB/Minimalist research on case and A-Chain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34*(1), 73-126.
Yoon, J. H-S. (1987). Some queries concerning the syntax of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Harvard WOKL* II, Hanshin Publishing Co.
Yoon, J. H-S. (1990). Theta-theory and the grammar of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s. In *Proceedings of NELS*, *20*, 502-516.
Yoon, J. Y. (1990). Korean syntax and generalized X′-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 of Texas at Austin.
Youn, C. (1990). *A Relational analysis of Korean multiple nominative constructi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Y at Buffalo.

임채경
718-910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대구예술대학교 교양과
전화번호: 054) 970-3121
전자우편: imcheg@chollian.net

Received in May, 2002
Accepted in August, 2002